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5, pp.127-134, September 30,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5.127

JCCT 2024-9-15

#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 Th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htical Values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mong Nursing Students

김미정*, 나은하**

**Mi-Jung Kim*, Eun-Ha Na****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일개 대학의 3학년 간호학과 163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하였고,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가치관 (r=.613, $p$=<.001), 간호전문직관(r=.548, $p$=<.001)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 시 저학년 때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윤리 교육과 간호전문관의 정립, 윤리적 의사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주요어** :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대학생,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fostering desirable ethical values and enhancing confidence in ethical decision-making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by identifying the mediating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values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urvey of 163 third-year nursing students from one universities. The SPSS/23.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Process Macro 4.0.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mong nursing students was found to be correlated with ethical values (r=.613,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ism (r=.548, $p$<.001). Nursing professionalis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values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tinuous and systematic ethics education program from the beginning of admission to nursing school, and to develop and implement various teaching methods that allow nursing students to experience ethical decision-making directly and indirectly, aiming to enhance their confidence in ethical decision-making.

**Key words :**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ism,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정회원,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6월 7일, 수정완료일: 2024년 7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일

Received: June 7, 2024 / Revised: July 10, 2024
Accepted: September 1, 2024
*Corresponding Author: naeh@gwangju.ac.kr
Dept. of Nursing, Gwangju Univ, Korea

## Ⅰ. 서 론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삶의 질 향상, 수명연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윤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양산하였고, 의료인들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최선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갈등과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 대상자와 24시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도 의료인의 책무인 대상자의 건강과 생명보호와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의 역량이 요구된다[1].

의사결정은 자신의 인지와 사고에 의한 결과로 의사결정자의 가치관, 경험, 선호도, 사고방식, 정보처리 능력 등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2]. 즉, 윤리적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하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윤리에 대한 가치관과 경험, 전문지식과 기술, 전문인으로서의 인식 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간호사는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과 풍부한 경험, 전문인으로서의 가치체계를 확립하여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3][4].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으로 학부시절부터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신념과 지식을 갖추고 자신감있게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3][5].

윤리적 가치관은 임상현장에서 간호행위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신념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은 졸업 후 실무현장에서 수행하는 전문직 간호행위와 직결되며,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6].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도덕적 고뇌나 갈등을 줄여주어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간호의 질적인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7][8]. 즉,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주고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자신감, 전문직으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5].

간호전문직관은 전인간호의 실천 핵심으로 간호를 전문직으로 가치있는 일로 여기고 간호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9][10]. 간호의 정체성과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윤리적 문제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 표현, 선택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친다[4][11]. 이 과정에서 간호제공자는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과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자아존중감,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11]. 즉,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은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은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대한 연구는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3][5]가 주로 이루어졌다. 매개효과 연구를 살펴보면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도덕적 민감성의 매개효과 연구[4], 도덕적 민감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매개효과 연구[12]가 있을 뿐 간호전문직관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연구 가설 2.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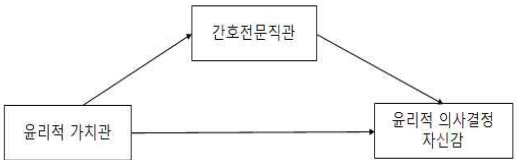


그림 1.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모형
Figure 1. Mediating effect model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Ethical values and Ethical making confidence

## II. 본 론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J도에 소재한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12일까지이다. 대상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 G-power program 3.1.9 version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을 적용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최소 153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6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167부(98.81%)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4부(2.36%)를 제외한 총 163부(96.44%)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1)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은 윤리적 가치관은 Schlenker & Forsyhh(1985)[13]에 의해 개발된 윤리적 개념(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 EPQ)를 기초로 Park, Weigold & Treise(1995)[14]에 의해 한국인에 맞게 번안하였으며, 마미옥(2005)[15]이 수정·보완한 윤리적 개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1~10번 문항은 이상주의적 가치관, 11~20번 문항은 상대주의 가치관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1~10번 문항의 점수가 높으면 이상주의적 가치관이 높은 것이고, 11~20번의 문항 점수가 높으면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미옥(2005)[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이상주의 .80, 상대주의 .76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87, 하위영역 신뢰도는 이상주의 .86, 상대주의 .80였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005)[9]가 개발하고 한상숙, 김명희, 윤은경(2008)[16]이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상숙김명희, 윤은경(2008)[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4,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7, 하위영역은 전문직 자아개념 .86, 사회적 인식 .89, 간호의 전문성 .86, 간호계의 역할 .78, 간호의 독자성 .89이었다.

3)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Sulmasy 등[17]이 개발한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cale (PECS)도구를 Laabs[18]가 수정·보완하고, 김지혜[19]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지혜[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89이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이용하였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
Table 1. Differences of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3)

| Variable | Categories | n(%) | Ethical values | | Nursing professionalism | |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 |
|---|---|---|---|---|---|---|---|---|
| | | | M±SD | t or F(p) Scheffé | M±SD | t or F(p) Scheffé | M±SD | t or F(p) Scheffé |
| Sex | Man | 51(31.3) | 3.91±0.52 | -.268 | 3.90±0.63 | -.943 | 3.78±0.76 | .001 |
| | Female | 112(68.7) | 3.94±0.58 | (.789) | 4.00±0.56 | (.347) | 3.77±0.07 | (.999) |
| Religion | Yes | 63(38.7) | 3.97±0.54 | .646 | 4.12±0.46 | 2.870 | 3.78±0.72 | .044 |
| | No | 100(62.3) | 3.91±0.58 | (.519) | 3.87±0.63 | (.005) | 3.77±0.76 | (.965) |
| Experience of ethical education | Yes | 128(78.5) | 3.95±0.55 | .991 | 3.97±0.58 | .351 | 3.81±0.75 | 1.185 |
| | No | 35(21.5) | 3.85±0.60 | (.323) | 3.93±0.60 | (.726) | 3.64±0.72 | (.238) |
| Awareness of korean nurse's declaration of ethics | Yes | 109(66.9) | 3.99±0.58 | 1.846 | 3.99±0.59 | .620 | 3.88±0.73 | 2.627 |
| | No | 54(33.1) | 3.81±0.51 | (.067) | 3.93±0.56 | (.536) | 3.56±0.73 | (.009) |

넷째,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program의 모델 4번을 이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12명(68.7%), 남자가 51명(31.3%)였고 종교 유무는 없음이 100명(62.3%), 있음이 63명(38.7%)였다. 윤리 교육 경험은 있음이 128명(78.5%), 없음이 35명(21.5%)였고,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을 알고 있음이 109명(66.9%), 모름이 54명(33.1%)였다<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종교 유무($p$=.005)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의 인지 여부($p$=.009)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리적 가치관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없었다<표 1>.

### 2.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은 3.93점(5점 만점), 간호전문직관은 3.97점(5점 만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3.77점(5점 만점)이었다<표 2>.

측정변인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분석한 결과, 왜도는 -.21~.22로 절대값 3 미만, 첨도는 -.98~-.55으로 절대값 10 미만으로 기준(Kline, 2005)[20]을 만족하여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
Table 2. Degree of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N=163)

| Variables | Range | M±SD | Skewness | Kurtosis |
|---|---|---|---|---|
| Ethical values | 1-5 | 3.93±0.56 | .20 | -.90 |
| Nursing professionalism | 1-5 | 3.97±0.58 | -.21 | -.55 |
|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 1-5 | 3.77±0.74 | .22 | -.98 |

### 3.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가치관(r=.613, $p$<.001), 간호전문직관(r=.54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1이 성립되었다. 윤리적 가치관은 간호전문직관(r=.52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 alism and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N=163)

| Variables | F1 | F2 | F3 |
|---|---|---|---|
| | r($p$) | r($p$) | r($p$) |
| Ethical values | 1 | | |
| Nursing professionalism | .528 (<.001) | 1 | |
|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 .613 (<.001) | .548 (<.001) | 1 |

† F1=Ethical values, F2=Nursing professionalism, F3=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표 4.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Ethical values ans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N=163)

| Variables | $\beta$ | S.E | t | $p$ | 95% CI | |
|---|---|---|---|---|---|---|
| | | | | | LLCI | ULCI |
| Ethicla values → Nursing professionalism | .546 | .069 | 7.871 | <.001 | .409 | .683 |
| Nursing professionalism →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 .393 | .088 | 4.466 | <.001 | .219 | .567 |
| Ethicla values →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 .588 | .091 | 6.456 | <.001 | .408 | .768 |
| Ethicla values → Nursing professionalism →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 .803 | .081 | 9.818 | <.001 | .641 | .965 |
| F=96.401(<.001), $R^2$=.376 | | | | | | |
| Mediating effect significance verification | | | | | | |
| | Effect | Boot SE | | | 95% CI | |
| | | | | | Boot LLCI | Boot ULCI |
| Total Effect | .803 | .081 | | | .641 | .965 |
| Direct Effect | .588 | .091 | | | .408 | .768 |
| Indirect Effect | .215 | .065 | | | .095 | .353 |

4.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1]가 제안한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샘플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 <표 4>와 <그림 2>와 같이 윤리적 가치관은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beta$=.546, $p$<.001), 간호전문직관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beta$=.393, $p$<.001)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의 사이에서 매개하였다. 즉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총 효과는 $\beta$=.803($p$<.001)이었으며 매개변수인 간호전문직관이 투입되면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대한 간호전문직관의 직접 효과는 $\beta$=.588($p$<.001)로 감소하여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2도 성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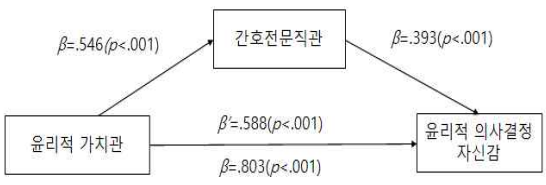


그림 2.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Ethical values and Ethical making confidence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검증 결과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표 4>.

## Ⅳ.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은 3.93점(5점 만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22]에서 3.53~3.80점, 보건행정이나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3][24]에서는 2.42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상자의 전공분야와 학년, 윤리가치관을 형성할 학습의 기회 등이 다르며[24] 간호대학생의 경우 3, 4학년때 임상실습을 통해 실무현장의 윤리적 딜레마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직·간접적인 경험이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5][22]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국내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간호윤리는 1학년의 간호학개론 교과목에서 일부 다루며 이후의 간호윤리 관련 교과목의 운영은 학교마다 다른 실정이다. 대학에 따라 최소 1학점에서 2학점인 간호학개론 수업시간에 간호윤리에 대한 이론적 내용(윤리이론, 윤리원칙, 윤리규칙, 윤리강령 등)과 생명윤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충분히 소개

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25].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 시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3.97점(5점 만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16]에서 3.71~3.95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에서 3.47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저학년때는 교육을 통해 간호의 전문성과 간호실무 역할에 대한 기대 등으로 간호전문직관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3, 4학년때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관찰 위주의 실습, 간호 수행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업무의 제한 등을 인식하면서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지게 된다[10]. 또한 간호사로 병원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호의 독자성의 제한과 한계, 간호의 가치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이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3]과 유사한 결과이다.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은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 윤리적 기준 등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간호실무의 질적 향상과 윤리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준다[4][9].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을 위해 간호의 전문성과 독자성, 사회적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 더불어 간호단체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가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3.77점(5점 만점)으로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 3.57점,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11] 3.83~3.87점으로 대상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3, 4학년의 경우 임상실습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인지하고 평가와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하는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더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한다[5][11][12]. 따라서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제공하고 의사결정과정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례분석,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수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겠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의 인지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11]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윤리의식의 제고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윤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준다[27].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대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외에도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12], 남성보다는 여성, 종교가 있는 경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3][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추후 이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윤리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7],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의 정체성과 전문적인 지식, 윤리적 기준, 직업의 사회적 기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윤리적 의사결정의 근거와 의사결정의 자신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4][9]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윤리적 가치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간호전문직이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윤리적 가치관[22][28]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4]에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도덕적 고뇌나 갈등을 줄여주어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업적 윤리를 확고하게 하여 간호직의 정체성 확립의 바탕이 되는 간호전문직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 형성과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함께 고려한 교육과정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은 단시간에 형성되지 않으며 학습의 기회, 임상실습 경험 등이 영향을 받으므로 교육과정 편성 시 저학년때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간호대학생이 직·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사례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다양한 교수방법의 적용이 필요하겠다.

##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은 간호전문직관의에 영향을 주고,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 시 저학년때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윤리 교육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더불어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가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간호단체의 활동과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학년 등 대상을 확대한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둘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 이외에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 형성과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의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1] J. Rainner, J.K. Schneider, and R.A. Lorenz, “Ethical dilemmas in nursing: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27, No. 19-20, pp. 3446-3461, 2018. DOI : 10.1111/jocn.14542

[2] M.S. Jung, E.K. Kim, S.Y. Kim, J.K. Kim, E.J. Park et al, “Nursing management,” Seoul, Hyunmoonsa, 2023.

[3] M.H. Lim, “Converged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in nurses,” *Journal of the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6, pp. 75-84, 2017. DOI : 10.15207/JKCS.2017.8.6.075

[4] B.H. Kang, and H.Y. Cho, “Mediating effect of moral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thics decision-making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9, No. 2, pp. 180-189, 2023. DOI : 10.5977/jkasns.2023.29.2.180

[5] S.H. Choi, and E.K. Byun, “Factors influencing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3, pp. 27-34, 2021. DOI : 10.17703/JCCT.2021.7.3.27

[6] M.S. Kim,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3, pp. 382-392, 2015.

[7] S.Y. Lee, “Moral distress and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3, pp. 119-124, 2019. DOI : 10.17703/JCCT.2019.5.3.119

[8] E.Y. Choi, “Ethical dilemma and professionalism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1, pp. 153-163, 2018. DOI : 10.17703/JCCT.2018.4.1.153

[9] E.J. Yeun, Y.M. Kwon, and O.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10] H.K. Lee, Y.S. Choi, J.S. Kim, M.S. Kim, C.Y. Jeon, C.Y. Cho, and Y.J. Heo, “The influence of calling and self 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6, pp. 563-571, 2023. DOI : 10.17703/JCCT.2023.9.6.563

[11]M.J. Kim, and E.H. Na,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and self-esteem on perceive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y Association (JKEIA)*, Vol. 16, No. 6, pp. 255-264, 2022. DOI : 10.21184/jkeia.2022.8.16.6.255

[12]E.A. Kim, and N.Y. Kim, "Mediation effect of biomedical ethics awareness between sensitivity and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6, No. 5, pp. 511-520, 2020. DOI : 10.11111/jkana.2020.26.5.511

[13]B.R. Schlenker, and D.R. Forsyth, "On the ethics of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3, No. 4, pp. 369-396, 1997.

[14]H. Park, M.F. Weigold, & D.M. Treise, "Advertising ethics: South Korean and American perception and ideology,"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Vol. 14, No. 2, pp. 95-106, 1999. DOI : 10.1207/S15327728JMME1402_3

[15]M.O. Ma, "A study on the work ethics and behavior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worker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5.

[16]S.S. Han, M.H. Kim, and E.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pp. 73-79, 2008.

[17]D.P. Sulmasy, G. Geller, D.M Levine, and R. Faden, "Medical House Officers' knowledge, Attitudes, and Confidence Regarding Medical Ethic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Vol. 15, No. 12, pp. 2509-2513, 1990.

[18]C.A. Laaba, "Confidence and knowledge regarding ethics among advanced practice nurse,"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 Vol. 33, No. 1, pp. 10-14, 2010.

[19]C.H. Kim, "The relationship among ethical dilemma, professional values, ethical confidence of clinical nurses,"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2014.

[20]R.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2005.

[21]A.F. Hayes,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22]H.J. Hwang, "The effects of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ethics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on ethics decidion making confidence and ethical valu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24, pp. 221-237, 2020. DOI : 10.22251/jlcci.2020.20.24.221

[23]E.Y. Jung, "The effect of ethical values on the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care administ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10, pp. 345-352, 2020. DOI : 10.14400/JDC.2020.18.10.345

[24]J.D. Kim, and H.S. Kim, "Correlation between ethical values, biothics, and artifical intelligence perceptions among healthcare works an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4, pp. 1247-1264, 2020. DOI : 10.22251/jlcci.2020.20.4.1247

[25]M.J. Kim, "Influence of humanities and empathy on ethical values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Vol. 28, No. 6, pp. 1865-1874, 2016. DOI : 10.13000/JFMSE.2016.28.6.1865

[26]M.S. Yoo,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moral courag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Home Care of Nursing*, Vol. 28, No. 1, pp. 26-35, 2021. DOI : 10.22705/jkashcn.2021.28.1.26

[27]K.S. Jang, M.H. Lee, I.S. Kim, S.H. Kim, M.J. Sin,N.S. Ha, B.H. Kong, and K.H. Chung, "Ethics & Profession of nursing," Seoul, Hyunmoonsa, 2017.

[28]M.Y. Moon, "Effects of ethical value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before applying nursing ethics educ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9, pp. 305-314, 2018. DOI : 10.21742/AJMAHS.2018.09.07.

※ 이 연구는 2024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